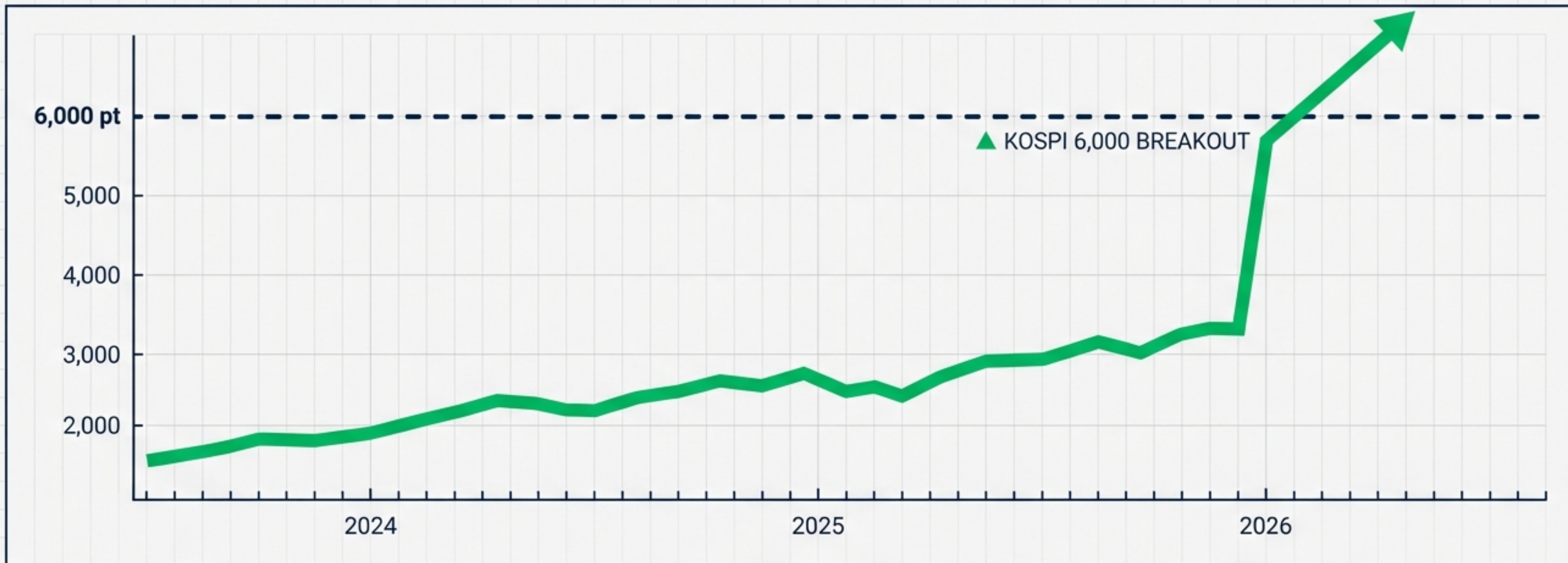


2026 글로벌 마켓 브리핑: KOSPI 6,000 시대 개막

역사적 신고가 경신과 글로벌 'Risk-On' 모멘텀 분석



2026년 2월 25일 (수)

Market Intelligence Team

Market At A Glance: 유동성이 매크로 경계감을 압도하다

Domestic (Bullish)

KOSPI 6,083.86
▲ 1.91% (Record High)

개인·기관(연기금)의 강력한
매수세가 외국인 매도
물량(878만 주)을 소화.
자동차, 2차전지 섹터의
폭발적 상승 견인.

Global (Rebound)

Nasdaq 22,863.68
▲ 1.04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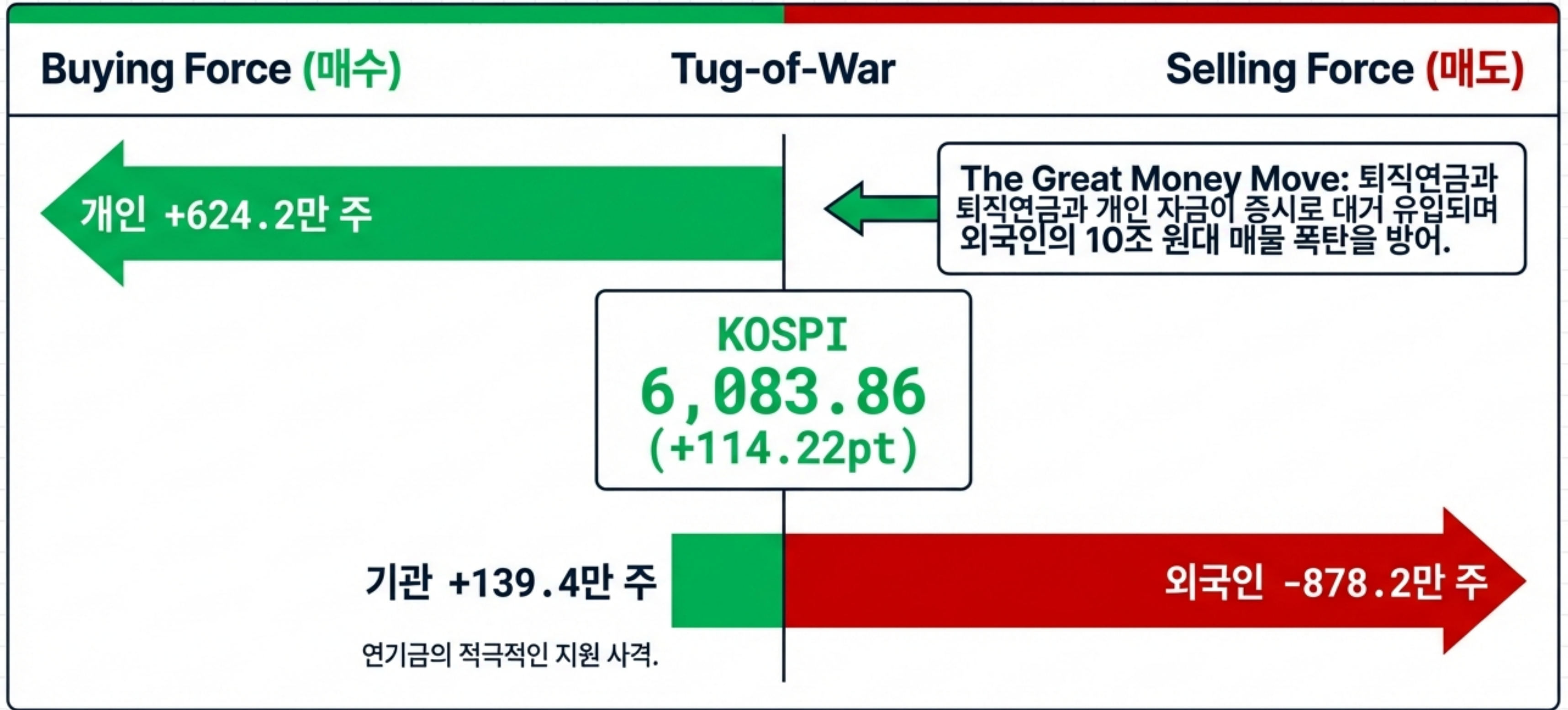
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트럼프
연설을 앞둔 기술주 저가 매수
유입. 글로벌 증시 동반 상승
(Nikkei +0.61%, STOXX 50
+0.62%).

FICC (Caution)

US 10Y Yield 4.035%
▲ 5bp

FOMC 매파적 기조 유지로
금리 상승 압력 지속.
유가(WTI \$66.2) 및
금/비트코인 동반 상승으로
인플레이션 헤지 수요 확인.

The Historic Moment: 사상 최초 KOSPI 6,000pt 돌파



Top Movers: 지수를 끌어올린 'Big 7'의 귀환

MVP: Auto Sector

현대차 (+9.16%) / 기아 (+12.70%)

밸류업 프로그램 성공 & 실적 호조



Battery Rebound

LG화학 (+10.56%) / LG엔솔 (+3.27%)

낙폭 과대 인식 및 섹터 로테이션



Tech Giants

삼성전자 (+1.75%) / SK하이닉스 (+1.29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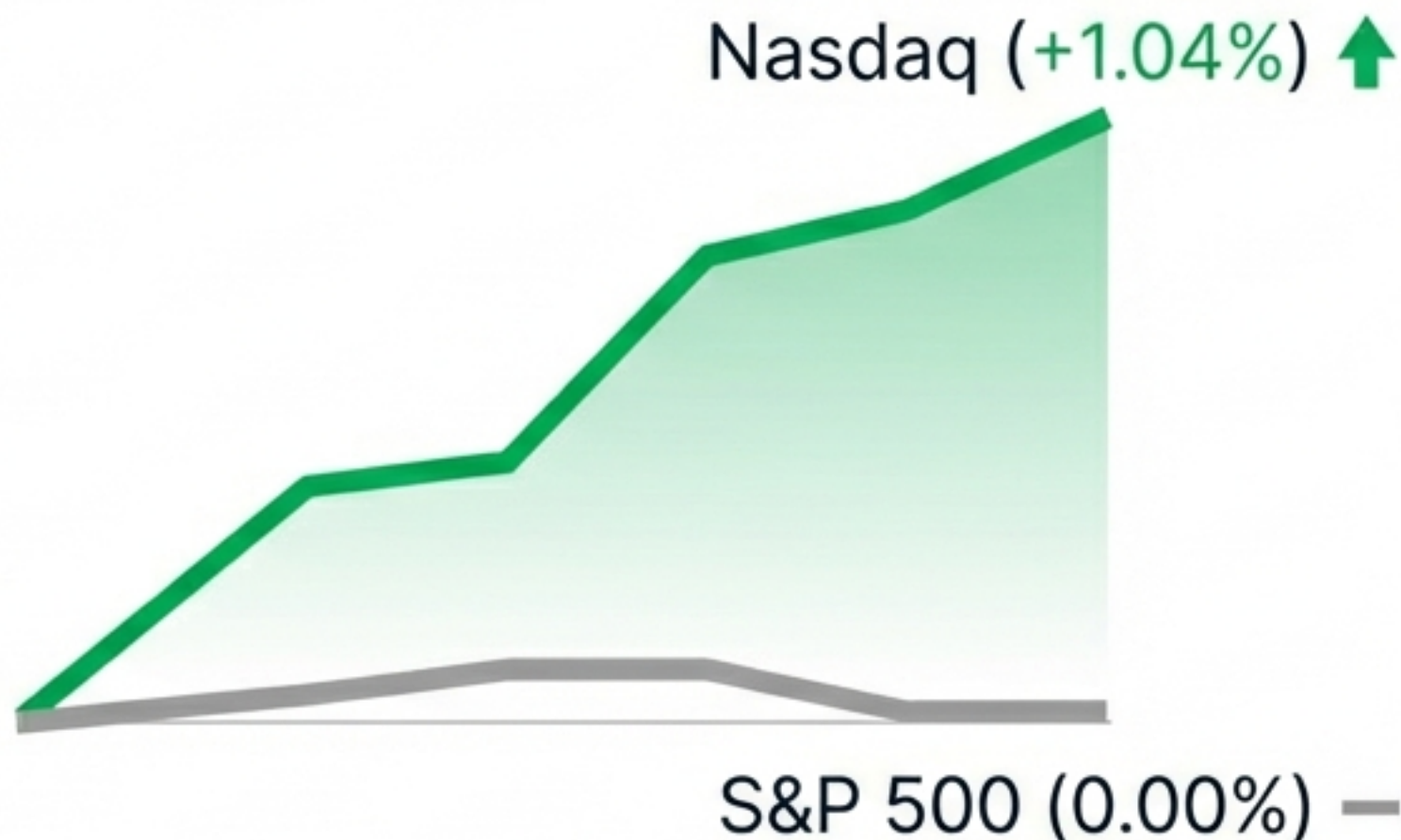
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감 유효






“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동반 급등은 시장의 질적 상승을 의미하며 추가 상승 여력을 시사.”

Wall Street Context: 기술주 반등과 빅이벤트 대기

1-Day Index Performance



Key Drivers

-  Nvidia Anticipation: 실적 발표를 앞두고 AI 반도체 섹터 저가 매수세 유입.
-  Trump Factor: 트럼프 전 대통령 연설 대기 (규제 완화 기대 vs 관세 우려).
-  Sentiment: 투자자 심리 'Fear' 단계 유지 → 역발상 투자 기회로 작용.

미국 시장의 기술주 반등은 한국 반도체/IT 섹터 심리에 긍정적 전이(Spillover).

Global Pulse: 아시아-유럽 동반 'Risk-On'



트럼프의 15% 관세 발언에도 불구하고 AI 공포 완화 및 지정학적 리스크(우크라) 완화 기대로 글로벌 증시 전반적 상승.

FICC Dashboard: 자산 가격 상승 속 경계 신호

Rates (국채 금리)

Risk

US 10Y Yield: **4.035% (+5bp)**

FOMC 매파적 기초. 4.1% 돌파 시
증시 변동성 확대 우려.

Energy (에너지)

Caution

WTI Oil: \$66.2 **(+\$2.62)**

OPEC 감산 연장 기대 vs 이란 핵협상
진전(하락 요인) 혼재.

Currency (환율)

Stable

USD/KRW: 1,445원 **(-5.30원)**

원화 강제 전환은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.

Alt. Assets (대체 자산)

Hedge

Bitcoin & Gold (\$103K)

전통 자산과 동반 상승은 유동성 과잉 및
인플레이션 헤지 수요를 방증.

Weekly Watchlist: 6,000선 안착을 위한 관문



26일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단기 방향성의 분수령.

Investment Strategy: History Made, Caution Required

유동성 파티를 즐기되, 금리 발작(Rate Tantrum)을 경계하라.

1. KOSPI Strategy



코스피 6,000 안착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낙폭 과대주(바이오/인터넷)로의 순환매 대비.

2. Global Tech



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 변동성 활용. AI 슈퍼사이클 뷰 유지.

3. Risk Trigger



미 국채 10년물 4.1% 상향 돌파 시 주식 비중 축소 고려.

**개인과 연기금이 주도한 역사적 6,000 시대.
이제는 실적(Earnings)이 밸류에이션을 증명해야 할 시간.**